

‘주류와 언어이론’의 단면도

문경환
(연세대학교)

0. 로고스와 뮈토스

서양어 myth의 어원인 뮈토스(mythos)는 로고스(logos)라는 낱말과 더불어 대략 ‘말’ 내지 ‘언어’의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로고스가 ‘이성, 사유, 사리판단’ 등의 의미역을 내포하는 데에 비해 뮈토스는 ‘신이나 초인에 관한 이야기’ 즉 ‘신화’ 쪽에 연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이른바 ‘소크라테스 이전’(pre-Socratic) 희랍 철학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구분은 별 의미가 없었을 법하다. 가령 헤라클레이토스가 “대립적인 생성소멸에 따라 만물을 형성하는 로고스”를 운위했을 때 그 로고스는 신화적인 우주생성 원리에 해당한다. 그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불’에 대한 이칭(異稱)이었다.

주지하듯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원질(原質)을 불이라고 보았다. 불은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주관하는 속성을 지닌다. 존재하는 것을 태워 없애는 가운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불은 또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설명한다. 우주의 네 원소 중 가장 희박하여 변하기 쉬운 것이 불이지만, 그 때문에 불→공기→물→흙으로 응고하여 ‘내려가는’ 과정과 이로 부터 다시 희박해져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항인(恒因) 작용을 한다. 요컨대 삼라만상의 혼돈상태로부터 ‘일관된 변화’ 혹은 ‘변화의 일관성’을 유도하면서 상반된 힘들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곧 불이

【Keywords】 mythos, logos, minimalist grammar, minimalism in arts, linguistic data, the linguist's writing practices

요 로고스다. “로고스가 보편적인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가 있는 양 살고 있다”고 그는 말했거니와, 이 ‘보편적 이치’로서의 로고스가 곧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는 먼 훗날 T. S. 엘리엇의 불이 되어 그의 사상(詩想) 속에 타오른다. 『황무지』이후—특히 『네 개의 사중주』에 이르러—이 시인에게 있어 불은 줄곧 인간의 뜻 욕망에 대해 신이 내리는 정화(淨火: purgatorial fire, refining fire, pentecostal fire)의 상징이었다. 중년에 접어든 그가 추구해 온 것은 일종의 무아 경지인 ‘정점(靜點: still point)인 바, 이는 정화가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사르고 난 후 남는 궁극의 상태요 시공을 초월한 불변상(不變相), 혹은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불 속에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간파했듯이, 엘리엇 또한 언제나 움직여 쉬이 없는 현상계—그가 말하는 천체의 무도(“the dance”)—속에서 부동(不動)의 일점(一點)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엘리엇에게 있어서도 이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점(頂點)에 위치하는 것이 로고스였다. 정화(淨火)를 통해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예술적으로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완성 단계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몰아(沒我)적 단순·소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엘리엇의 로고스론(論)이다.

이렇게 보면 로고스와 뫼토스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시인의 ‘말씀’ 또한 로고스이니, 여기서도 로고스는 천지창조의 신화로서 뫼토스와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로고스와 뫼토스가 갈림길에 들어선 것은 소크라테스 이후 참된 존재(ontos on)에 대한 사유방식으로서의 로고스를 ‘역견’(doxa)으로부터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소피스트들은 객관적 진리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1) At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 Neither flesh nor fleshless;

Neither from nor towards; at the still point, there the dance is,

But neither arrest nor movement. (“Burnt Norton” II, 62-7)

[회전하는 세계의 정점(靜點). 현세적이지도 비현세적이지도 않은 곳;

벗어남도 다가섬도 없는 곳; 정점, 거기에는 성좌의 무도(舞蹈) 속에

정지도 움직임도 없다.]

부정함으로써 기존의 윤리적 기초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조장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플라톤이 보기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소피스트들은 ‘계몽적 파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새로운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수사적인 논쟁술과 변증술에 대해 천착함으로써 철학을 오류 추리 등을 목적으로 한 개념적 유희-즉 퀘변술-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사회의 기강이던 신화는 부패한 계층의 언어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믿음의 기초를 이루던 뉘토스는 방만한 억견을 부풀리곤 했다. 이처럼 퇴색해 가는 뉘토스의 맞은편에서 사물의 본질 즉 ‘우시아’(ousia)에 도달하기 위한 이성적 에피스테메로서의 로고스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²⁾ 플라톤이 (‘동굴 유희’와 같은) 신화의 형태를 여러 대화편에서 이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개념적으로 형용하기 힘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뉘토스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당대의 ‘잠자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자신의 이데아를 전파할 수 없었으므로 로고스에 뉘토스를 적절히 배합했던 것이다. 엄밀성을 한층 더 중시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달리 뉘토스를 혐오한 나머지 로고스로부터 완전히 축출해 버렸지만 말이다.³⁾

어쨌든, 우리의 시대에는 로고스와 뉘토스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 뉘토스는 아무리 이상하여 믿기 힘들더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절대권위의 말씀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정반대의 증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진실이라고 전제되어 신화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뉘토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어떤 곤경과 좌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감지하는 순간 뉘토스는 우리 앞에 나타나 신비의 문을 열어 준다. 그러한 구원의 기적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 증거가 거짓으로 보일 경우에 오히려 더

2) ‘우시아’는 (phenomenon에 대비되는) 누메논(noumenon)과 동의어라 할 수 있으며, 플라톤의 ‘이데아’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3) 이러한 연유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logos가 logic과 거의 동의어로 인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향도 생기게 되었음을 필자는 다른 글(2001)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여기서는 이에 관련된 논급을 피하기로 한다.

큰 기적으로 다가온다.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신화는 생겨나기 마련이며, 신화의 효험을 보려면 ‘이해’하려고 하기에 앞서 ‘믿어야’ 한다.

뫼토스가 ‘믿음’을 생명으로 한다면, 로고스는 ‘회의’를 생명으로 한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캐는 것이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았거나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인간 속성인지라 인간의 지각체계는 여러모로 착오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주어진 관찰법이 가져온 결과가 놀랄만한 것일수록 오히려 그 관찰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고스적 사유법이다. 존재하는 것은 곧 사유하는 것이요, 사유하는 것은 곧 의심하는 것이라는 데카르트의 꼬기또(cogito) 에피스테메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서로 마찰하는 신화들은 그냥 그대로 공존하지만, 상이한 과학이론이 경쟁 관계에 놓일 때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그 승자가 계속하여 승자일 수는 없다. 어느 때든 새로운 경쟁가가 나타나 새로운 승자로 자리잡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아직도 대학의 강의실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의 천체물리학과 논리학은 저 멀리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종언을 고했다. 운동경기에서 지는 팀이 생기듯 이론은 패배할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이론은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이란 일련의 해답이 아니고 해답을 구하는 체계이자 과정이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답을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해답을 내렸다가 바꿀 수도 있다. 해답을 구하는 방법이 해답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주어진 이론의 ‘과학성’ 여부를 판가름하려면 그 이론을 부정하고 다른 이론을 택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이론 자체에 내포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된다. 이것이 바로 과학철학자 포퍼(1963)가 말하는 ‘반증론’(falsificationism) 내지 ‘오류가능성론’(fallibilism)의 골자이다.

1. ‘최소주의’ 이론

로고스와 뫼토스에 관한 논급으로 이 글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살펴 볼 하나의 이론 체계가 로고스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뫼토스의 언어를 원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고스를 추적하는 곳에서 뫼토스의 언어를 빌려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로고스와 뫼토스가 일체(一體)로 혼연(渾然)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목하의 이론이 과연 뫼토스의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만한—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만한—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론이 주는 인상은 위에서 말한 바의 뫼토스보다는 그것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낱말 myth가 뜻하는 바, 즉 '잘못된 생각' 내지는 '알 수 없는 소리'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뫼토스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내용을 다루면서 뫼토스의 언어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대상은 소위 '주류파 언어이론'으로 통하는 촘스키 문법론의 가장 최근 형태인 '최소주의적(minimalist) 접근법'이다. 이 이론들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문법론의 새로운 모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바, 그 이론적 세목들을 이 글의 제한된 지면에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무리이다. 그보다는 목하 문법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는 하나의 논조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 이론 모형의 기본 방향을 점검해 보려 한다. 즉 최소주의 이론 자체의 세부사항보다는 그 이론적 함의를 논함으로써 이 이론이 언어학도에게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검토가 때로는 이론의 미주알 고주알을 캐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언어학도가 저 옛날 스콜라학파에게 붙었던 '겨자씨 자르는 사람들(cymini sectores)'이라는 별명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사실 최소주의 이론을 떠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는 '언어학'이라는 학문 분과의 현주소를 조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좀 더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몇해 전 국내의 한 학회 모임에서 행해진 강연 내용인 바, 이 글의 성격을 감안하여 출처의 명기는 삼가고 다만 '강연' 내지 '강연자'라는 표현으로 그치려 함에 양해를 구하고 싶다.

각론에 앞서 간략한 개관부터 하자면, 최소주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모토를 내걸고 있다. 그 하나는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장치가 절대적 필요(sine qua non)의 수준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이론

장치가 종래의 생성문법과는 달리 ‘언어 내적’ 요인들뿐 아니라 ‘언어 외적’ 요인들까지 두루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언어이론은 ‘언어기능’(language faculty)⁴⁾에 관여하여 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정신기능을 고려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그 설명방법은 가장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언어이론상의 설명 장치가 인간의 일반적 정신작용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것 이상의 개념들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는 한 편으로 ‘문법’이라는 독립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의적이고 ‘개념상 부자연스런’ 설명방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고, 또 한 편으로는 문법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소주의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또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접근법은 우선 촘스키 문법론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기능의 독자성’ 명제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함으로써 목하 언어이론의 행방을 묘연하게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새로운 이론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종전과는 달리 인식론(즉 로고스의 영역)과 형이상학(즉 뫼토스의 영역) 사이를 오락가락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루는 언어자료의 내용과 그러한 초월적 존재의 개념 사이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괴리가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인간언어에 대해 ‘완벽성’이니 ‘비완벽성’이니 하는 것을 운위함으로써 오히려 왜곡된 언어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제 입론의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4) 혹자는 (그리고 이 글에서 차후 거론될 강연자도) language faculty를 ‘언어능력’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 우선 linguistic competence라는 개념과 혼동되기도 하거니와, 이때의 faculty란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정신기관 상의 능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기관’과 ‘능력’을 합쳐 줄이면 ‘기능’이 된다.) 이러한 번역에 의거하여 우리는 ‘언어기능’(language faculty)이 본유적인 반면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개별문법상의 지식까지를 포함하며 따라서 본유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촘스키의 정의를 따라서 말이다.)

2. 치료적 효과?

목하의 강연은 종래의 이론들에 내재한 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이전의 생성문법은 언어현상에 대해 “너무 기계적인 해결만을 제시하는데 급급”했고 또한 “설명하고자 하는 언어 현상을 단지 생성-문법적 용어를 써서 기술하는 것에 불과”했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론적 방편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함에 있었던 바, 최소주의 모형은 이론 장치를 최소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적 효과”를 지닌다고 강연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주의 접근법이 제시하는 설명방식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말인지 묻고 싶거니와,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기로 하자.⁵⁾ 또한 ‘기술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설명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준한 이론장치상의 억제책(constraint)에 그토록 몰두하던 종래의 모형—이를테면 지배결속이론—을 이제 와서 “이론적 방편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폄하해 버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평가도 독자에게 맡기기로 하자. (강연자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지배결속이론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했음을 여기에 부언해 두기로 한다.) 지금의 관심사는 “치료적 효과”라는 용어인 것이다. 하나의 이론이 자체 내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말이다. 이는 마치 자신이 잘못 쓴 글을 수정하면서 치료적 효과를 내세우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런 일이다. 우리는 가령 어떤 의약품이 종전의 효능을 개선했다고 하여 그 개선된 약품이 이전의 약품에 대해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치료적 효과란 그 약의 ‘처방 대상’에 적용되는 말이다.

5) 기실 “유인자 자질”이니 “상대 자질”이니 “무임승차 자질”이니 “자질 점검”이니 “자질 삭제”니 “집합병합”이니 “쌍두병합”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 기계적 장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보기에 최소주의 접근법은 종전의 지배결속이론보다도 오히려 한층 더 기계적이 되었다. (기계적 접근법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이론체계를 세우려면 모종의 기계적 장치가 필요한 법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최소주의 이론이 마치 기계론의 경지를 초탈하기라도 한 듯한 어투에 이의를 달고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조지 무어, 하버마스, 아펠(Karl Apel) 등이 종래의 분석철학이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치료적 과제’를 논한 적은 있다. 종래의 논리실증적 분석철학은 관찰가능성 명제를 통해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탈피하기는 했지만 객관적 인식론에 지나치게 경도함으로써 한 편으로는 주관적 이해와 해석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또 한 편으로는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실천 윤리를 제시하는 데에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말해 자연언어를 논리단소(logical simple)들로 환원하는 것이 분석철학의 본디 의의는 아니며, 사회공동체 속에 성립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담론윤리의 정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보편화용론’이나 아펠의 ‘선형적 화용론’은 이러한 자각의 결과인 바, 이에 앞서 비트겐슈타인이 종전의 형식논리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일상언어 쪽으로 관심을 선회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이 이전에는 ‘말놀이의 모범’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언어분석의 치료적 과제에 소홀했음을 깨닫기에 이른 것이다.⁶⁾ 그러나 이때의 ‘치료’란 목하 접근법의 ‘실천적’ 의의-말하자면 방금의 각주에서 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료 효과-를 두고 한 말이지 접근법상의 방향 수정 자체를 가리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강연자의 (혹은 촘스키의) “치료적 효과” 운운은 결국 최소주의 이론을 윤색하기 위한 엉뚱한 수사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6) 이제 그는 ‘삶의 형태’를 이루는 말놀이 개념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쉬운 예로 과학이라는 삶의 형태에는 그것에 고유한 말놀이의 규칙들이 있고, 예술이라는 삶의 형태에는 거기에서만 의미가 통하는 말놀이 규칙들이 있다. 그러므로 한 쪽의 규칙체계로 다른 한 쪽의 삶을 해석하려는 것-이를테면 기호논리의 말놀이를 자연언어의 말놀이를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장기관의 규칙으로 바둑을 두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의 ‘사용론적 의미론’은 이렇게 출발한다.) 사회적 혼란의 많은 부분은 결국 삶의 형태를 구분치 못함에서 비롯되는 바, 따라서 상이한 말놀이의 규칙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른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인 것이다.

3. 창조주?

강연자는 이어 최소주의 문법론의 “본질적 효과”를 운위하면서 이를 “창조주의 언어 설계”에 연계시킨다. 강연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최소주의는 필수출력조건외의 고려가 언어 연구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 언어는 필수출력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도록 창조주(創造主: Super-engineer)에 의해 설계(設計 design)되어 있다는 엄청난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설을 최강력 최소주의 가설(最強力最小主義假說 The Strongest Minimalist Hypothesis)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최소주의는 필수출력조건외의 연구를 통해 창조주의 언어 설계(Super-engineer's optimal language design)에 입각한 문법 연구를 가능케 한다. 이것을 최소주의의 본질적 효과(substantive value)라고 한다.

과연 엄청나고도 최고로 강력한 가설이다. 가설이라면야 얼마든지 엄청날 수 있으리므로, 문제는 그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언어이론에 “창조주” 개념까지 끌어들이니 말이다.

츨스키 문법론의 토대가 되었다는 데카르트 철학도 신의 존재를 설정하기는 했다.⁷⁾ 그러나 이는 한 편으로 당시의 종교적 분위기의 위세를 의식한 제스처였고, 또 한편으로는 (후일의 칸트가 그랬듯이) 인식론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심신 이원론에서는 연장성(延長性)-쉽게 말해 물질적 부피-를 지니지 않는 ‘사유체’(res cogitans) 그리고 사유기능이 없는 물질인 ‘연장체’(res extensa)가 구분되고 있는 바, 이는 신학이나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신과 정신에 관한 학설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신학과 독립적으로 자연 법칙을 탐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

7) 츨스키는 데카르트와 뷔르로와얄 문법가들에 의해 정립된 이성론적 언어이론이 이후 훔볼트에 이르기까지 약 두 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자신의 언어이론은 이 “데카르트식 언어학”의 맥을 잇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Chomsky 1966). 이에 대해 아르스레프는 그 두 세기를 풍미하던 것은 데카르트식 언어관이 아니라 오히려 존 로크식 언어관이라면서 츨스키식의 해석을 반박한다(Aarsleff 1970).

할을 했다. 다시말해 표면상으로는 신의 존재를 긍정함으로써 종교계로부터 환심을 얻으면서도, 더 깊게는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들에 대해 신학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당대 과학자를 종교재판에 회부하거나 처형함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었던 셈이다. 결국 데카르트는 오늘날 철학계에서 ‘범주적 한계’로 통용되는 개념을 정립한 셈이거니와,⁸⁾ 최소주의 문법론은 이 한계를 위반하고 있다.

츨스키는 언어기능의 본유적(innate) 실재를 전제로 하여 문법론을 전개해 왔는 바, ‘초월적 공학자’(Super-engineer)—혹은 강연자의 번역인 “창조주”—는 이로부터 확대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유적 언어기능이라는 개념의 근거를 츨스키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에서 찾았지만,⁹⁾ 이렇게 출발하여 신적 존재로까지 비약한다면 이는 언어기능을 데카르트의 ‘송과선’(松果線: spinal gland)같은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해당한다.¹⁰⁾

아울러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른바 꼬기또(cogito) 인식론 자체가 순환논법에 불과하다는 (스피노자 등의) 지적도 있었음을 기억해 둘 만하다. 자아관념의 본유성에 근거해 신의 존재를 논증하고 나서 다시 신의 존재에 근거해 본

8) 범주적 한계란, 물질계에 적용되는 범주로 정신계를 포착하려는 유물론, 혹은 역으로 정신계에 해당하는 범주로 물질계를 파악하려는 유심론 내지 관념론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개념이다.

9) 본유관념이란 자아관념, 진리관념, 물체관념, 수학공리의 관념, 물리적 인과법칙의 관념, 신에 대한 관념 등을 이르는 것으로, 사실 여기에 ‘언어기능’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의 목록을 절대시할 이유가 물론 없지만 말이다. 기실 오늘날 두뇌생리학적으로나 언어습득론적으로 밝혀진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보건대, 언어기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어기능이 ‘본유적’이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장 삐아제는 츨스키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Piattelli-Palmarini 1980 참조).

10) 송과선이란 데카르트가 자신의 심신 이원론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하여 학계의 웃음거리로 된 개념이다. 이 세계가 그토록 철저하게 이원적이라면 물질적 여건이 인간의 정신에 (혹은 후자가 전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뇌의 중심부에 송과선이 있어 여기에서 정신과 육체가 만난다고 했던 것이다.

유관념의 실재를 논증하는 순환논법 말이다. (이는 다음 각주에 언급될 안셀무스의 논법과 흡사하다.) 철두철미 의심함으로써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자아 존재를 발견하려 한 데카르트의 노력은 처절한 데가 있지만, 여기에는 논리상의 함정이 있었던 것이다. 모래를 모두 제거하면 금만이 남는다는 주장은 오로지 모래에 금이 섞여 있을 때에만 성립된다.¹¹⁾ 이렇게 보면 데카르트가 철저한 방법적 회의를 인식론의 모토로 내세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설피게 신의 존재를 개입시킨다는 당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비판과 의혹은 무리가 아니었으며, 이는 최소주의 언어이론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필자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적 존재를 증명하려는 안셀무스식의 시도가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 치더라도,¹²⁾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신의 존재 여부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인식론의 범주에 속하는 언어이론에 믿음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일은 '범주적 한계'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음 절의 인용문에서 보게 되듯이 강연자는 "언어가 창조주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논증

11) 사실 데카르트의 '의심' 개념은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올 수 있다. 이것이 '순수한 의심'이다.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인위적인 의심'이다. 퍼스(Peirce)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의심을 구별하면서 데카르트의 의심법이야말로 순수하지 못하며 따라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뮤니츠 1977: 65, 68).

12)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Credo ut intelligam)는 명제를 통해 신앙과 지식의 합일을 도모했는데, 신에 대한 그의 ('존재론적') 증명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 신은 완전무결하다 (대전제), (2) 실재성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해 완전무결을 운위할 수는 없다 (소전제), (3) 그러므로 신은 실재한다 (결론). 이 증명은 많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동조를 받았고 (기실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후일 데카르트에 계승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증명의 대전제 자체가 이른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영어로 하면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명제에 '프랑스의 왕이 있다'는 하위 명제가 함의되듯) '신은 완전무결하다'는 명제 자체에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함의되어 있어 결국 목학 삼단논법의 결과(3)는 동어반복(tautology)에 지나지 않는다. 안셀무스의 증명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칸트는 더욱 철저히 비판했다.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하는데, 이는 방금의 각주에 소개된 안셀무스 식 삼단논법의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petitio principii)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촘스키 문법론이 이제는 실재론과 유명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세의 상황으로 우리를 되돌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종교의 지배하에 있던 중세에는 보편적 실체에 대한 믿음이 당연한 것이었으니, 보편실재론을 부인하는 것은 곧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한 안셀무스, 그리고 그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암흑기’의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보편적 실체란 이름뿐이며 인위적인 산물이라는 유명론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티우스의 견해가 그러했고, 둔스 스코투스의 견해가 그러했으며,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한 ‘무적 박사’(Doctor Invincibilis) 오캄의 견해가 또한 그러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초월자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독단적인 유명론자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거부한 적은 없었으니, 기실 위에 열거한 유명론자들도 당대의 신앙가들이었다. 다만 “(입론상의) 실체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져서는 안된다(Entia non sunt multiplicanda praeter necessitatem)”는 것인즉, 이것이 바로 오캄의 면도날이다.

방금의 명제는 과학과 인식론의 격언으로 간주되기에 이르거니와, 최소주의 언어이론이 내세우는 “창조주”니 “창조주의 언어 설계”니 하는 것이야말로 오캄의 면도날로 제거되어야 할 사족 개념 아닌가? “최강력 최소주의 가설”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강연자는 자신의 차례에 앞서 연단에 선 다른 강연자가 언어습득론에 관련하여 운위한 ‘심리적 실재성(psychological reality)’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의 힐문에 가까운 논평을 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객관적으로 규명되지도 않은 관념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을 어떻게 이론에 사용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이 당연했던 것이, 이튿날 있을 자신의 제2차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참이었기 때문이다.

전통문법에서는 가끔 소위 “심리학적 증거”를 도입하여 그들의 문법 분석을 보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적 증거의 이론적 의의가 명시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학적 증거”의 도입이 별로 큰 의의가 없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신의 “창조주”니 “창조주의 언어 설계”니 하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명정한 개념이고 상대방의 “심리적 실재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인가! 굳이 따지자면 후자가 훨씬 더 이론적으로 수용할 만하지 않은가? 사실 심리적 실재성 내지 심리학적 증거는 촘스키 문법론에서도 빈번히 거론되던 개념임에랴. 촘스키는 (해리스식의 도구론에 대비되는) 심리적 실재론이 “내 사고방식 자체의 직접적인 배경”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법론이 취하는 “당연한 입장”이라고까지 했다(1975: 35, 37). (언어학 이론이 반드시 심리학적 증거에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증거를 “전통문법”에 연결해 치우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새로이 생겨난 최소주의 모형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이전에 그토록 신봉하던) 선행 모형마저 매도해 버리는 꼴이요, 편리한 곳으로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수법의 전형적인 예이다.

4. 완벽 언어 설계?

강연자는 “완벽주의 가설”을 논하기도 하는데, 이와 더불어 등장하는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라는 표현은 참으로 집요하게 되풀이되면서 독자의 참을성을 소진케 한다.

최소주의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다른 모든 육체적/정신적 기관(physical/mental organs)과는 달리 창조주(Super-engineer)에 의해 최적으로/완벽하게 설계되어(optimally/perfectly designed)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논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최소주의의 완벽주의 가설(完璧主義假說 The Perfectionist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optimal/perfect language design)는 어떻게 확

인되나?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의 최소주의적 조건을 설정하고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를 추정해 간다. 최소주의는 이와 같이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를 추정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추정된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학이 획기적 발전을 거두리라고 본다.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의 최소주의적 조건으로서 다음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 첫째는 필수출력조건이고, 둘째는 개념적 자연성 조건(Conditions of Conceptual Naturalness, CCNs)이다. 즉, 이 두 조건을 이상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창조주는 인간 언어를 최적으로/완벽하게 설계하였으리라고 가정한다.

[중략]

최소주의는 언어가 창조주에 의해 최적으로/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였는데, 이 가정을 올바른 것으로 논증하는 것이 최소주의의 최대 목표이다. [후략]

끝없이 계속되는 반복표현, 번거로운 괄호처리, 이러한 문체상의 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인간의 다른 모든 육체적/정신적 기관과는 달리 유독 언어만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가정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미지의 것을 “가정”하여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 순환논법의 위험은 없는가? 가설과 추정으로 점철되는 논증 작업이 어떻게 언어학의 획기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인가?

강연자는 여기서 촘스키 문법론이 표방해 온 연역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 칸트 그리고 많은 경험론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연역법은 그 나름의 허점을 지니고 있다. 통계적 확률과 개연성에 만족하는 귀납주의와는 달리 연역법은 확실하고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만, 거기에 사용된 전제가 명확히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한 결국 무의미하다. 더구나 철학적 내지는 사조상의 발상 전환 등에 의해 가설(즉 전제) 그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 그 가설에 대한 논증 체계로서의 이론 또한 공허해져 버린다. 설사 그 가설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론은 우리가 (‘가설’의 형태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넘어서는 지식을 우리에게 추가해 주지 않는다.¹³⁾

연역체계와 귀납체계의 상대적 우열관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최소주의 이론이 “창조주의 최적/완벽 언어 설계”를 가정하고 이를 추정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이런 작업이 최소주의 문법의 “본질적인 효과”라니 하는 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학이나 형이상학이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창조주에 입각한 가정 자체가 오류이다. 그러나 목하의 “완벽주의 가설”은 기실 형이상학의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다. 이 가설은 우주가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대전제로 하는 셈이지만, 신을 필연적 존재(Ens necessarium)이자 가장 실재적인 존재(Ens realissimum)요 또한 최고의 완벽자(Ens perfectissimum)로 보는 정통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우주가 과연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미결 상태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기한 이 의문은 이후 셸링, 쇼펜하우어 등에 이르는 못 철학자들의 머리를 골몰케 하면서 “도대체 왜 無가 아니고 하필 有인가?”(Warum ist überhaupt Seiendes und nicht vielmehr Nichts?)라는 유명한 물음으로 변하기도 했거니와,¹⁴⁾ 어쨌든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그것은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견해도 성립된다.¹⁵⁾ ‘신의 예정조화설’을 주장하는 라이프니츠조차 우주는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를 점차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에서도 신은 ‘최고의 완벽자’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개

-
- 13) 이 점은 일찍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른바 “신기관”(novum organum)을 주창하면서 지적한 바 있다. 연역법은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거나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나, 연역법에 의한 결론은 전체의 재도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귀납법의 특성인 종합판단은 인식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확장판단’(Erweiterungsurteil)인 데에 비해, 연역법의 특성인 분석판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 줄 뿐인 ‘설명판단’(Erläuterungsurteil)이다.
- 14) 유와 무는 똑같은 가능성이며, 또한 우주가 모순투성인 채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 지금의 이러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 15) ‘우주가 완벽하게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불완벽하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연 관되는 것으로 ‘우주가 최소(minimum)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최대(maximum) 상태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Gardner 1984: 48-52 참조).

선론(meliorism)은 이러한 입장의 한 유형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완벽한 우주 창조’를 대전제로 하는 것은 단순논법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창조주”나 “최강력 최소주의 가설”이니 “완벽주의 가설”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용어에 불과하다. 오리무중의 개념들에 대한 균형 감각 있는 해명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여운이라도 남기지 않은 채, 마치 모든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필연의 진리인양, 다음 개념으로 또 다음 개념으로 흥겹게 진행하며 언어학의 “획기적 발전”을 운운하는 강연자의 모습에 순박한 중학생의 모습마저 겹쳐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철학사 관련 책이라도 한 권 신중하게 읽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순박한 전제와 가정의 행렬은 어느 참석자의 논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완벽주의 가설에 입각한 최소주의 이론이 “창조주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원리”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언어이론이라면서, 이 원리가 “인간 원리”로 불린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인간 원리? 나는 그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인류 원리(anthropic principle)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말이다. 이는 관찰자 원리(observership principle)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스티븐 호킹, 존 휠러, 닐스 보어 같은 양자역학자들이 내놓은 답이다. 쉽게 말해, 만일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던질 존재인 인류도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며 따라서 우주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⁶⁾ 이는 위에서 말한 ‘왜 무가 아니고 하필이면 유인가’ 라는 철학자들의 수수께끼에 대한 과학자들 나름의 해법이라 할 만한 것으로, ‘창조주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을 엉뚱한 곳에 연관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16) 일견 어정쩡한 객설로 보이는 이 설명에 실은 모종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인간은 단순히 우주의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찰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며 따라서 만물이 존재함은 인간 의식 자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외의 우주란 허상에 불과하여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자원리요 인류원리이다.

5. 비완벽성?

전통적으로 이성론자들은 '완벽한 언어'를 상정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이는 현상 세계란 어떤 이상적 원형(arche)의 그림자요 눈을 현혹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플라톤 사상의 유산으로,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언어는 완벽한 사유의 불완벽한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생각에서 플라톤은 언어가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폄하하는 편이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두 가지 언어사상이 있으니, 그 하나는 언어가 사유를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그 후차적 외현물일 뿐이라는 '수동적 언어관'이요, 또 하나는 그 후차적 외현이라는 것도 온갖 정서적·주관적 요소로 범벅되어 단정치 못하기 마련이라는 '부정적 언어관'이다.¹⁷⁾ 앞서 말한 형식논리학적 분석철학자들이 기호논리어의 정립에 골몰하게 된 경위도 따지고 보면 (즉 그들이 비록 '이성

17) 언어 자체가 사유의 결정자요 관념의 창출자라는 능동적 언어관도 물론 있어 왔다. 가령 야스퍼스에 의하면 언어란 "존재가 밝혀진 것(Das Offenbarwerden des Seins)"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거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포괄자(ein Umgreifendes)"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어와 더불어 비로소 사유할 수 있다"(1964: 10, 37). 하이데거에게도 언어는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초월적 존재를 '감추어진 상태'로부터 드러내는 "존재의 현현(die Unverborgenheit des Seins)"이요 역사적 현존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 힘이자 "존재의 집(das Haus des Seins)"이다(1980: 286).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간은 마치 자신이 언어의 조형자이고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실은 언어가 인간의 주인이다"라고 역설한다(1954: 146). 이를 비단 철학자들의 관념적 어법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촘스키가 애용하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은 홀볼트로부터의 차용인 바, 이 말은 언어와 사유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의 외현임을 뜻한 것이 아니다. 계몽사상의 소유자이자 또한 낭만주의자였던 홀볼트는 언어 자체가 사고구조를 결정짓는 요소의 하나라는 낭만주의 언어관을 열렬히 설파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관은 미국의 언어학자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에 전수되어 이른바 '사피어-워프 가설'을 낳기도 했다. "사고의 내용이 심리적으로 단어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사고는 구별되지 않는 무정형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가 없는 사고는 구름덩이냐 마찬가지다"라는 소쉬르의 말도 능동적 언어관을 반영한다. 언어가 어떤 선재하는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후차적 표현 수단일 뿐이라는 통념은 사실 (자끄 데리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오늘날 심각한 반격에 처해 있다.

론'의 계열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언어관에 연유한다. 그들은 자연언어가 논리적 사고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츨스키가 수동적 언어관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언어의 '창조적' 측면을 운위한다는 점에서 그는 긍정적 언어관의 소유자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완벽주의 가설"을 내세우는 최소주의 이론에는 플라톤적 이데아론에 바탕한 부정적 언어관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 거린다.¹⁹⁾ 기실 언어의 "비완벽성"을 초미의 관심사로 하는 것이 최소주의 이론이라고 강연자는 말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목하의 언어이론은 적어도 부정적 언어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창조주의 완벽 언어 설계"란 결국 실제의 언어가 완벽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바, 이로부터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차차로 논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자.

언어의 외견상 비완벽성의 확인은 최소주의의 가장 획기적 언어학·이론적 성취의 하나로 평가된다. 생성문법의 모든 기본적 개념과 최소주의 대부분의 기본

-
- 18) 이런 점에서 라이프니츠나 카시러(Ernst Cassirer) 같은 사람들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수리체계에 입각한 "보편문자(Characteristica Universalis)"를 자연언어의 모델로 삼으려 했으나, 자연언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으며 각개 언어들의 역사적 변천과정 내지 이들 상호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대상일 수 있음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카시러 또한 논리어의 정립에 공헌하면서도 능동적 언어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가 논리어를 추구한 것은 자연언어가 개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다만 사유체계의 기호적 표상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언어가 사고와 인식의 조형자이며 나아가 신화의 제조자라는 생각을 그는 버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휠덜린이나 키츠와 같은 시인에게서 보는 언어의 힘과 미학을 언급하기도 한다(1946: 1장, 3장). 부연컨대 움베르토 에코는 "완벽한 언어의 추구"라는 제목의 책(1995)을 썼지만, 이는 대체로 '태초 언어'와 '선형적 언어형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으로 현재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 19) 츨스키가 말하는 창조성이란 '규칙에 지배되는 창조성(rule-governed creativity)'으로, 이는 사실상 '긍정적 언어관의 표명으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성'이란 '규칙에 얽매이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Moon(1998) 참조.

적 개념은 역사적으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외견상 비완벽성 개념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견상 비완벽성 연구는 21세기 신종(novel) 언어학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외견상 비완벽성은 “창조주가 정상적으로 개념적 자연성 조건에 입각하여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어떤 자연-언어적 특성의 효과를 위하여 부득이 개념적 자연성 조건을 어기는 비완벽성을 도입·활용한 경우”라는 것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창조주”라는 개념에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이니 “부득이”니 하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것도 유치하거니와, 언어연구사에 있어 특정의 법칙체계에 합일치하지 않는 ‘예외적’ 현상은 수도 없이 거론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림의 법칙(Grimm's law)’으로 설명될 수 없던 현상이 ‘페르너의 법칙(Verner's law)’에 의해 설명된다든지, 이른바 ‘대범주 규칙(major rule)’에 어긋나는 듯이 보이던 언어현상이 ‘소범주 규칙(minor rule)’으로 설명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 말이다. 기실 언어연구사는 이렇듯 외견상의 예외 현상이 결국은 예외가 아님을 (즉 일견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은 모종의 규칙체계에 환원될 수 있음을) 밝히는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니,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획기적”이니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이니 하는 표현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며, “외견상 비완벽성 연구는 21세기 신종 언어학으로 등장할 전망”이라는 표현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강연자는 “진성 비완벽성”이라는 것도 소개한다.²⁰⁾ 이는 “필수출력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구조적 특성 이상의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는 경우”라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진성 비완벽성이 언어에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왜냐

20) 제3의 것으로 그는 “가공 비완벽성(misdescribed imperfection)”이라는 것도 소개한다. 이는 (원어의 뜻 그대로) ‘잘못된 기술’의 결과로 생겨나는 경우를 뜻하는 바, ‘잘못된 분석’이라 하면 죽할 것을 굳이 “가공 비완벽성”이라 부른 것을 보면 (역어의 어색함을 떠나) ‘분류를 위한 분류’라는 인상을 풍긴다.

하면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진성 비완벽성이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지금의 맹장, 사랑니, 임신부의 입덧, 등은 인간이 생존해 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진성 비완벽성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인간을 처음 설계할 때에는 맹장, 사랑니, 임신부의 입덧, 등이 지금과는 달리 어떤 필요에 의해 설정되었었는데,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비완벽성 요소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언어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이른바 자연도태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다윈의 이 학설 맞은편에는 돌연변이—강연자의 용어로 “우연발생”—의 누적이 곧 생물의 진화과정이라는 드프리스(De Vries)의 견해도 있음을 언급해 둘 만하다.²¹⁾ 즉 돌연변이는 생존환경에 적합하도록—다시말해 비완벽에서 완벽으로—진행된다는 학설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앞서의 한 인용문에서는 최소주의 이론이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다른 모든 육체적/정신적 기관과는 달리”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특정 언어현상을 “맹장, 사랑니, 임신부의 입덧”과 같은 육체적 현상으로부터 유추하고 있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²²⁾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비완벽성”이라는 용어이다. 종전의 촘스키 문법론이 문학작품상의 언어를 포함한 여러 범주의 언어 형태에 대해 ‘비문법적(ungrammatical)’이라는 정의를 내림으로써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촘스키 문법론에서 사용되는 ‘문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상불 ‘오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법성’이라는 용어가 ‘완벽성’이라는 용어로 대치된 지금은 사정이 매우

21) 덧붙이건대, 이 인용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다시 말하면”이라는 말은 요령부득이다. 전반부에서는 문제의 해부학적 내지 생리학적 현상들이 원래는 필요 없었으나 진화과정에서 우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이들을 창조주의 원초 설계에 들어 있었던 것이라니 말이다.

22) 강연자는 “개념적 자연성 조건”이라는 것을 논하면서 “창조주가 언어능력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들을 설계할 때 개념적 자연성 조건을 그 설계지침으로 삼았으리라고 본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다른 모든 육체적/정신적 기관과는 달리 설계되어 있다”는 말과 충돌한다.

다르다. ‘완벽’이니 ‘불완벽’이니 하는 말에는 강한 가치판단의 색조가 들어 있어, 종전에 촘스키 언어이론에 대해 가해지던 식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펴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종래에 그토록 중시해 오던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의 입지를 버리고 어느새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이는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이론이 설정한 조건들에 들어맞는 언어만이 완벽한 언어이고 그 외의 언어는 ‘불완벽한’ 언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가령 시어(詩語)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언어형태는 필경 최소주의 조건들에 의해 지정된 구조 이상의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할 것이며, 따라서 “진성 비완벽성”의 예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 문학이 추구하는 ‘완벽한 언어’일수록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진정으로 불완벽한 언어’가 될 판인 것이다.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문법성’과 ‘가용성(acceptability)’ 여부를 정의하던 종전의 이론들에서는 이런 상황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법성은 어디까지나 언어 내적 요인들에 연관된 개념이므로 가용성 여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설명법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법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생성문법의 둘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문법의 기본적 철학의 문제이다. 최소주의는 문법현상을 “언어-내적”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문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최소주의는 언어 현상을 “언어-내적”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언어-외적(language-external)” 요인과 연관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언어-외적” 요인이란 무엇인가? 최소이론에서 “언어-내적” 요인이란 “언어능력(language faculty)” 또는 “인지체계(cognitive system)”를 뜻하고, “언어-외적(language-external)” 요인이란 언어에 관련된 “비언어능력(non-language-dedicated faculty)” 또는 “수행체계(performance system)”를 뜻한다.

이렇듯 언어외적 요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 최소주의 이론이니, 이제는 종래 가용성 여부에 연관되던 언어현상에 대해서까지도 “완벽성” 여부를 운위하게 된 것이다.²³⁾ (바로 위의 각주에서 보았듯이 “개념적 자연성 조건”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들”에 관여한다.) 위에서 지적한 개념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거니와, 이것이야말로 최소주의 이론의 “기본적 철학의 문제”임을 강연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빈약한 언어자료

언어학 이론이 언어외적 요인들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날의 언어학은 그것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엄격한 방법론의 굴레 그리고 이에 연유하는 이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이론 적용의 폭을 어느 정도까지 넓히느냐, 그리고 그럼으로써 ‘학(學)’으로서의 엄격함과 명쾌함을 얼마만큼 희생해야 하느냐 하는 번민에 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언어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의 마지막 인용문에서 본 강연자의 말에 나 또한 근본적으로는 동감이다. 위의 논의는 최소주의 이론이 내세우는 “완벽주의 가설”이니 “진성 비완벽성”이니 하는 것에 수반되는 개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실 이러한 용어와 개념들은 목하 이론이 (강연자의 말과는 달리) 아직도 “기계적인” 설명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계적 성격은 언어자료의 편협함으로도 표출된다. 무려 네 차례나 계속된 강연을 통해 강연자가 막상 제시한 언어자료는 “There is a man in the room”이니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room”이니 “I believe there to be a man”

23) “언어-내적 요인이란 언어능력 또는 인지체계를 뜻한다”는 표현도 문제이다. 언어능력(혹은 언어기능)은 인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그 자체가 ‘언어 외적’ 요인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자의 표현은 촛스키 이론이 말하는 ‘언어기능’이 과연 독자적(autonomous) 인지기능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이니 “?There is me/*There am me”니 하는 소위 ‘*there*-구조’가 고작이요, 거기에 “The DA proved the defendants to be guilty during each other’s trials”는 괜찮고 “*The DA pro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uilty during each other’s trials”는 안되고 하는 식의 ‘조응관계’, “철수가 학교에/를 간다”와 “철수가 교실에/*을 간다”라 할 때의 ‘격 형태’ 문제, 그리고 “What did you see”에서 보는 ‘*wh*-이동 현상’,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첨가되었을 뿐이다. “최소주의는 언어 현상을 언어-내적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언어-외적 요인과 연관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말을 뒷받침할 만한 시도를 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수행체계”에 관련될 법한 언어자료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문법현상을 언어-내적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문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든가, “감기로 인한 두통을 단순히 두뇌-내적 현상으로만 간주하여 그 두뇌의 통증만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처방안”이라든가 하는 등의 말들이 애시당초 왜 필요했던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런 단세포적인 언어자료를 통해 과연 “창조주의 완벽 언어 설계”를 논증할 수 있으리라는 말인가! 거창하고 요란한 말잔치 후에 제공되는 보잘것없는 음식, 한마디로 이것이 목하의 강연을 통해 받은 삽화적 인상이다. 과대망상의 결과는 환멸이다.

물론 강연자가 언급한 것만이 최소주의 이론이 다루는 언어현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주의 이론이 현재 다루고 있는 언어자료가 “창조주의 완벽 언어 설계”를 논증할 만큼 폭넓고 깊이 있는 성격의 것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강연자는 최소주의 이론이 아직 “지극히 초보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 바, 이는 아마도 현행의 데이터 취급 범위에 대한 해명일 것이다. 하지만 목하 문법론이 등장한 것이 90년대 초이니, 이 이론도 이제 “지극히 초보 단계”에 있지만은 않다. 바른 말로, 대략 10년을 터울로 하여 이론들을 달리 해 온 것이 촛스키 문법론 아니던가! 그러니 최소주의 이론도 이제는 ‘성인 단계’에 들어선 셈이며, 따라서 언어자료의 한계를 연륜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볼 필

요가 있다.

혹자는 그[=촘스키]의 변화무쌍함, 즉 급격하게 자신의 이론을 바꿔 가면서 이를 자기 이론의 자연스런 확대인 듯이 제시하는 능력을 칭송하는 가운데 그에게 탄복한다. [...] 촘스키의 이같은 행위로 언어학은 큰 해를 입었다. 언어학이 오늘날 사회학적으로 매우 허약한(sociologically very unhealthy)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주로 촘스키의 활동에 기인한다. [...] 언어학적 입론뿐 아니라 생성문법에 입각한 언어 분석이나 記述도 그 전반적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제는 **바이호르**로 언어학이라는 분야 전체가 지적으로 하찮게(intellectually irrelevant) 되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Seuren 1998: 526)

7. 미니멀리즘의 막다른 골목

강연자는 ‘최소주의’라는 낱말 뒤에 ‘문법론’이나 ‘언어이론’이라는 낱말을 좀처럼 붙이지 않는다. (기실 ‘최소이론’이라는 표현이 딱 한번 발견될 뿐이다.) 이는 위에 마지막으로 인용된 그의 말이 암시하는 내용, 즉 최소주의 이론은 “언어 외적” 요인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법론 이상의 것이라는 견해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논의에 관련하여 부언해 둘 만한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최소주의 즉 ‘미니멀리즘’이 문예사조상으로도 흔히 등장하는 용어라는 점이다. (촘스키가 이 문예상의 용어로부터 모종의 영감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이제 그 내력을 잠시 살펴봄으로써, 최소주의가 반드시 언어이론의 지상 목표이자 의심할 바 없는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좀 다른 시각에서 음미해 보자.

미국의 평론지 『문학평론』(The Literary Review)은 “세기말 문학”이라는 주제의 특집(1990년 겨울호, 164-71쪽)을 통해 미니멀리즘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소설형식”으로 묘사한다. 예측불허의 시대를 특징짓는 감정 소진의 문학. 본질을 캐기보다는 감각의 표피에 머무르려는 사고방식의 묘사법.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위 동기 혹은 사건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작과 클라이막스와 종결의 플롯도 없이,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 찍듯 일상 삶

의 무표정한 편린들을 꺾어모으는 모자익 기법. 아니, 더 이상 쓸 의향조차 없다는 듯 '최소한'의 글귀로 그칠듯 말듯 하는 작가. 말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단적 경향의 한 단면, 그것이 미니멀 문학이다.

사실 미니멀리즘의 정신이나 동향은 이미 회화나 조형미술계의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미니멀 문학도 실은 미니멀 미술의 영향 일 것이다.) 미니멀 미술은 '사실적 표현성'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까지미르 말레비치나 뻬에 몬드리안 등을 위시한) 일군의 선도적 추상주의자들은 사진술과 대량복제술의 발달로 야기된 이른바 '재현의 위기'를 극복할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며,²⁴⁾ 이러한 시도는 '모방'을 통한 사실적 재현을 초월하려는 의지로 나타났다. 예컨대 나무의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추상을 위한 최소한의 표현'인 단 몇 개의 선만으로 족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표현주의로부터 추상주의를 거쳐 최소주의로 진행되는 일련의 연쇄반응인 셈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는 그 '최소'란 과연 어느 정도를 뜻하는가, 말하자면 나무의 묘사에 필요—혹은 충분—한 것이 진정 몇 개의 선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미니멀리즘이 봉착하게 된 새로운 딜레마인 바, 그 해결책은 '그 몇개의 선이라는 것이 애당초 필요하기나 한가' 하는 의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급되는 의문으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의 하나는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것이니,

24) 대량 재현의 기술은 예술가들도 하여금 회화가 지니는 재현기능으로서의 역할 내지 권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마르크스식으로 말해 하부구조의 기술혁신이 시각예술이라는 상부구조적 전통을 능가하면서, 수공예적인 독창성(미술)이 대량생산(사진)에 의해 대체되기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 (사실 이 위기감은 심각한 것이었다. 사진에 의한 현실 재현은 그 사실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에 있어 '모방이론'에 입각한 사실주의 예술작품을 무색케 했으니, 이는 '사실주의'라는 사조 자체의 종말을 뜻하기도 했던 것이다.) '대량 재현'의 가능성 속에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는 '예술적 재현'을 구해냄으로써 예술의 권위와 자율성과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적 재현의 현실일량 사진술과 복제술에 떠맡기고 '한번만 만들어지는 것'에 전념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차례로 생겨난 것이 입체파 운동, 초현실주의, 슈프레마티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인 미니멀리즘이다.

이같은 추론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굳이 작품을 만들 필요란 없으며 다만 작가의 의도나 구상, 다시말해 ‘창조의 가능성’만으로 족하다는 이른바 ‘개념주의’ 말이다(타타르키에비츠 1986: 80-90참조). “예술은 죽었다”(Art est mort)는 아방가르드들의 예언이 실현된 셈이다. 미니멀리즘의 종착점은 ‘예술 작품 없는 예술’이자, 관용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극단주의이며, 예술가에 의한 예술종말론인 것이다.

에프라임 키슨(1996)은 이에 대한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한다. 가령 캔버스에 두 개의 선을 그려놓고 “리듬을 넣은 선의 아폴로적 완성”이라는 제목을 붙인다거나, 한 쪽 모서리에 갈색의 얼룩을 하나 찍어놓은 캔버스를 “자기도취적으로 끓어오르는 힘의 유희가 만들어 낸 팽창하는 부드러운 구조”라 부른다거나, 다섯 개의 녹색 사각형을 그려놓고 “원형적인 신비의 뜻과 카메라적인 신비의 뜻 사이의 나선적이고 유동적인 대립”이라 하는 따위 말이다.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아직 ‘충분히 최소화’하지 않다. 뒷면에 작가의 사인이 있을 뿐인 텅 빈 캔버스를 “멜로디의 과잉에 대한 시각적 거리로서 스케치된 흔들리는 진테제”라 한다든지, 아예 백지를 (그림들 사이에) 걸어놓고 “그림들 사이의 공간”이니 “시대를 초월한 변용으로 인해 우주적으로 상승하는 세포”니 하는 형편이니 말이다. (하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무슨 제목인들 못 붙이랴) 키슨이 살바도르 달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인용된 책: 92).

오늘날 피카소의 아류적 후예들은 제대로 화필을 잡는 법도 알지 못할 뿐더러, 사람의 얼굴을 대충이라도 스케치하는 능력조차 없다. 이렇게 나가다간 한 세대가 캄캄한 예술적 야만 상태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대미술을 이처럼 어이없게 만든 데에는, 작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휘황찬란한 어휘—“미술 에스페란토어”—를 고안해 내어 관람객의 “지적 속물근성”에 영합하는 미술평론가들의 책임도 크다고 키슨은 지적한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같은 책: 86-7).

그 사이 그림은 그것에 딸린 부수적인 텍스트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 이제 는 그림 자체가 사이비 철학을 설명하는 삽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예술 연구가이기도 한 탐 울프(Tom Wolf)가 이제부터는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을 확대해서 걸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 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니멀리즘은 음악의 세계에서든 막다른 골목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존 케이지 식의 즉흥(aleatoric) 음악을 들 수 있다(Wade-Matthews & Thompson 2002: 63, 478, 485 참조). 예컨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악기를 그 어떤 방법으로 연주해도 좋은' 것이 그의 <0'00">라는 제목의 음악인데, 이는 <4'33">라는 '음악'에 비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무대 위에 선 가수들이 아무런 노래도 부르지 않고 4분 33초를 보내는 '완전한 침묵'의 콘서트가 이 후자이기 때문이다. 이 현대적 합창 단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퇴장하는 동안, 그곳에 모인 '진보적인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낸다!

문예사조상 미니멀리즘이 지니는 의미-이를테면 표현주의 내지 사실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의미-를 여기서 선불리 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작품 자체는 뒤로 밀어놓는 '개념 예술', 그리고 이를 운 색하는 휘황찬란하고도 허무맹랑한 언어의 포장술이 조장되어 왔다는 점만은 부정하기 힘들다. 어쨌든 미니멀 예술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목하 강연자를 통해 비쳐진 최소주의 언어이론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위에 서술된 미니멀리즘 상황을 상기시킨다. 종래의 생성문법이 그토록 진지하게 다루던 이론 장치들을 거의 모두 폐기처분하고 단 몇개의 관념화된 이론 장치에 천착한다는 점, 이에 대한 철학적 동기가 휘황하고 엄청난 어휘로 치장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정작 관심의 대상이어야 할 언어자료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점, 대략 이런 점들에서 말이다. 최소주의는 정말로 언어이론이 지향해야 할 의심할 바 없는 최선의 방향인가? '최소화'의 도정이 끝나는 곳에서 이론과 실체가 모두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최소주의 언어이론은 '언어학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8. ‘츨스키 혁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 새로이 생겨나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관된 입지를 지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학설이나 이론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밀받침하는 철학 내지는 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바꿔 말해 모종의 철학적 이상이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곧 이론인 셈이며, 그렇지 못한 이론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정밀하다 할지라도 결코 세간의 폭넓은 관심을 끌지 못하리라는 뜻이다. 츨스키의 문법론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주류파’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론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시사하는 철학적 의의,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을 있게 한 철학적 바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합리론과 심성론과 연역주의에 입각한 그의 문법론은 확실히 종전의 블룸필드식 기술문법이 표방하던 경험론적이고 행동주의적이며 귀납주의적인 성향과는 대조적인 것이었으며, 그런 만큼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충격과도 컸던 것이다. “오늘날의 철학에 츨스키의 언어이론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 길버트 하먼의 견해(1974: vii)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츨스키 문법론도 50년대 말의 맹아기와 60년대의 성숙기, 그리고 70년대를 정점으로 한 기대감과 열광의 시기와 80년대의 완숙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점차 그 불길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90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최소주의 모형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학계의 외부로 눈을 돌려 볼 때 종전에 보던 것과 같은 관심이나 호기심은 이미 사라진 것 같다. 아직도 혹자는 츨스키를 과학계의 영웅이자 “엄청나게 숙련된 웅변가(a tremendously skilled rhetor)”요 “특출하게 인상적인 산문문장가(an especially impressive prose stylist)”로 묘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로마이오스나 코페르니쿠스에 견주기도 하고(Harris 1993: 240-260), “모든 인문학 분야를 통틀어 오늘날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열 명의 저자 중 하나”요 “최고의 열 사람 중 유일한 현존 인물”로 평하기도 하며(Pinker 1994: 23), 또 혹자는 아예 지도자에 대한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찬양에나 비견할

만한 성인열전식 전기(傳記)를 그에게 헌정한 바도 있지만(Barsky 1997), 이런 견해와 관행이 언어학계를 떠나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의심스럽다.

이론이나 학설을 ‘외부의 관심’에 결부시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모름지기 이론가란 세정(世情)으로부터 초연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초연함과 편협함은 구별되어야 한다. 학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 삶의 한 형태라는 점을 망각할 정도로 시아가 좁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정된 영역을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적 자세는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판개도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외부의 관심에 무관심한 채 목하의 이론에만 천착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독한 공간에서 영원한 독백을 즐기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특정 이론을 절대시하거나 그 이론의 주장자를 우상시하는 것은 이론가의 자세도 학자의 자세도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촘스키를 “최고의 열 사람 중 유일한 현존 인물”로 여기는 핑커도 그러한 우상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기괴한 종교적 숭배의 전파자들에게서나 어울릴 경탄어린 존경심(the awe-struck deference ordinarily reserved for gurus of weird religious cults)”을 촘스키에게 보내는 현상 말이다(같은 책, 같은 곳). 기실 “오늘날의 철학에 촘스키의 언어이론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는 하먼의 말도 과장법에 해당한다. 오히려, 촘스키 언어이론이 철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당대의 철학 사조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²⁵⁾

25) 여기서 나는 촘스키 문법론의 대두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두 가지의 사항을 언급해 두고 싶다. 하나는 그 당시가 논리실증주의적인 과학철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계관(Weltanschauung) 과학철학’이 한창 조성되던 때였다는 점이다(Suppe 1977 참조), 촘스키가 구조주의 문법론에 대해 펼치던 논박의 내용은 세계관 과학철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을 향해 제기하던 비판과 기본 입론이나 논지에 있어서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언어적 변환’(linguistic turn)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정도로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한 복판에 두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초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차이에서 보듯이) 애당초는 문장의 의미를 논리단소(logical simple)들로 환원한 형식언어의 확립에 열중하던 분석철학이 나중에는 일상언어—즉 자연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면 한 때 유행하던 ‘촘스키 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²⁶⁾ 그보다도 이제는 그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촘스키 문법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촘스키 혁명이라는 표현의 정치적 은유는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혁명은 오히려 “언어학의 발전상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견해(Sampson 1980: pp. 130, 163)도 있거니와, 소위 ‘어문학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촘스키 언어학이 언어학계열과 문학계열 사이의 간극을 굳히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본다. 가령 소쉬르의 언어이론이 문학비평,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등의 분야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꾸준히 지적 활동상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촘스키 언어학은 ‘주류파’로서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언어학의 입지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촘스키 문법론은 항상 철학적 색조의 입론을 매력으로 하여 우리의 눈을 한정된 언어현상에 고착시켜 온 것이다.

촘스키 문법론이 언어학이라는 분야 전체를 “사회학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지적으로 하찮게” 만들었다는 조이렌의 말을 위에서 인용한 바 있거니와, 그 까닭은 우선 이 이론의 철학적 의의가 더 이상 흥미거리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이 문법론의 강령이라 할 데카르트식 합리론은 오늘날의 지식인들 사이에 오히려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의 서로 연관된 원인이 더 있으니, 이론 장치의 관념화 내지 추상화 경향이 그 중 하나이다. 촘스키 문법론에 있어서 이는 특히 새로운 이론 모형을 제시할 때마다 이전 모형과의 본질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얼마 전의 지배결속이론만 하더라도 실은 종래의 이론틀로부터 설 명적 타당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상적(utopian)”일 뿐이며 따라서 보편문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자는 ‘형식언어학과’ 그리고 후자는 ‘일상언어학과’로 흔히 지칭되거나, 이러한 관심의 전환기에 있던 당시 철학자들의 눈에 자연언어의 문제를 철학과 심리학에 두루 근접시키려는 촘스키의 생성문법론이 크게 부각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6) 이 표현의 부적절성에 관한 논의로는 Newmeyer(1986)를 참조할 것.

향한 종전의 노력은 “단명(short-lived)”했다는 말로 출발했다(cf. e.g. Chomsky 1978: 14). 그리고 또다시 이 이론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최소주의 모형이다.

물론 이론들은 바뀔 수 있다. 흔히들 말하듯, 이론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로고스와 뫼토스는 구별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이론가란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회의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적 혁신 작업의 결과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며, 이 점에 관해 우리는 대략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해 둘 만하다.

첫째, 목하의 언어이론이 탈바꿈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루어지는 언어자료 자체는 거의 동일 범위를 맴돌아 왔다. 촘스키가 말하는 ‘관점 전환’이란 (그의 거듭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호법상의 변화’(notational variation)에 불과하다는 평을 면하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의 파생 현상이 있으니, 그 하나는 언어 자체보다도 그것을 설명키 위한 이론장치에 집착하는 습성이다. 특히 최근의 최소주의 접근법은 이것이 과연 언어이론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론의 관념화에 중점을 두고 천착하면서 또다시 이전 이론들과의 본질적 차이를 내세우는 일에 몰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점점 더 거창하게 관념화되는 이론 장치들의 포장을 벗기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은 점점 더 빈약해 가는 언어자료일 뿐이다.

둘째, 언어자료를 소홀히 하는 습성은 또 한편으로 표현법에 대한 무관심을 은연중에 합리화한다. 언어학 이론을 개진함에 있어 표현상의 문제는 별무상관이라는 식의 사고방식 말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학위논문이라는 것을 쓰면서도 논조의 세련미나 문체상의 배려는 고사하고 낱말 선택 내지 문장들 간의 연결 관계조차 안중에 없는 듯 몇 가지의 정형화되고 도식화된 어투로 전문용어를 꿰맞추는 일로 일관하는 풍조, 심지어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조잡한 표현으로 지면을 채우면서도 이에 별로 개의치 않는 풍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언어학도들 중에는 아직 ‘내용이 중요하지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초급 수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표현층위가 의미층위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하다. 더구나 그 ‘내용’이라는 것이 독자를 수궁케 할 만한 호소력을 지니는 것도 못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촘스키 문법론이 언어학적 입론의 전반적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데에 한 몫을 크게 했다는 조이렌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셋째, 이론들의 거듭되는 변화는 부지부식간에 ‘축적된 지식’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구체적인 것들을 광범위하게 아는 것이 추상적인 공식들을—그것들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도 있거니와, ‘광범위한 지식’은 언어학의 도리가 아니던가? 우선 몇년 몇달이 멀다하고 변모하는 이론의 행보를 계속해서 좇는 일은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허탈’케 한다. 더욱이 외국의 어떤 새로운 동향이 감지될 때마다 이를 초특급으로 입수하여 소개하거나 이에 맞추어 자기의 이론을 수정해 나아가는 것이 학자 본연의 자세라고 믿는 듯한 모습, 혹은 하나의 이론분파에 속해 있지 않으려는 것은 곧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믿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이론의 중요성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적 세련미’, ‘학문적 원숙미’의 중요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유독 촘스키 언어학에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촘스키 이론이, 비교도 안될 만큼 빈약한 언어자료에 급급하면서 언어학을 형식논리학의 아류로 만들고 있는 듯한 이론, 철학적 바탕은 전혀 없이 고등학교 영문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차 한잔의 팍세’ 식 설명과 도표 그리기에 열중하는 이론, 외마디 말 정도의 언어형태에 장황한 관심을 쏟는 이론, 이런 것들을 논외로 했을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만 ‘주류파’로서의 이 언어이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촘스키 혁명’이 어떤 점에서 “언어학의 발전상 매우 불행한 일”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떤 점에서 언어학을 “사회학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지적으로 하찮게” 만들었는지 우리 나름대로 음미해 본 것이다. 위에 지적된 것들 중 특히 첫째와 둘째 사항을 합쳐 보건대, 결국 목하 문법론은 ‘언어 그 자체에는 별 관심도 소양도 없이 언어학을 할 수 있

는 길’을 활짝 터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는 정녕 언제까지 추상적 사변과 자폐적인 환상 속에 갇혀 언어적 소양을 소진하고 있을 것인가!

9. 맺는 말

촘스키는 본래 블룸필드식 구조주의 언어학에 입문했었다. 그런데 이 언어 이론의 원리들이 그릇된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목하 원리들을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적용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이라 할 만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세계대전 중 격침되었다가 인양된 한 낡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 “한 바탕 배멀미의 도움으로”(aided by a bout of seasickness), 문득 악몽에서 깨어난 듯, 자신이 따르고 있던 구조주의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Chomsky 1979 참조). 이렇게 새로이 출범한 생성문법론은 몇 차례의 항로 변경 끝에 이제는 최소주의라는 깃발을 달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 배가 난파하게 되더라도 촘스키 자신이야 크게 후회할 일은 없다. 꽤나 많은 선원들을 휘하에 거느리며 반 세기에 이르는 행복한 항해 일지를 마감한 셈이니까. 다만 그를 믿고 승선했던 선원들의 신세가 처량할 뿐이다. 촘스키호(號)의 출범이 결국은 언어학의 발전 상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고 되뇌어 본들,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한 바탕 배멀미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비단 촘스키식 이론가들뿐 아니라 ‘언어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다.

인용문헌

- 타타르키에비츠, 올라이슬라브(Wladislaw Tatarkiewicz). 『예술개념의 역사』(A History of Six Ideas). 열화당미술선서 57. 김채현 역. 서울: 열화당, 1986.
- 문경환. “대통합 언어이론을 향하여”. 『인문언어』 1.1. (2001)
- 키손, 에프라임(Ephraim Kishon).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Picassos süße Rache). 반성완 역.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디자인하우스.
- 뮤니츠, M. K.(Milton K. Munitz). 『현대분석철학』(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박영태 역. 서울: 서광사, 1997.
- Aarsleff, Hans. “The History of Linguistics and Professor Chomsky”. *Language* 46:3 (1970).
- Barsky, Robert F. *Noam Chomsky: A Life of Dissent*. Cambridge, Mass.: MIT Press, 1997.
- Cassirer, Ernst. *Language and Myth*. New York: Dover, 1946.
- Chomsky, Noam. *Cartesian Linguistics*. New York: Harper & Row, 1966.
- _____.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New York: Plenum, 1975.
- _____. “A Theory of Core Grammar” *GLOW* 1, 7-26 (1978).
- _____. *Language And Responsibility*. New York: Pantheon, 1979.
- _____.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Eco, Umberto. *The Search for the Perfect Language*. Oxford: Blackwell, 1995.
- Gardner, Martin. (ed.) *Great Essays in Science*. New York: Prometheus, 1984.
- Harman, Gilbert. (ed.) *On Noam Chomsky: Critical Essays*. New York: Anchor Books, 1974.
- Harris, Randy, A. *The Linguistics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eidegger, Martin.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Günther Neske Verlag, 1954.
- _____. *Holzwege*.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80.
- Jaspers, Karl. *Die Sprache*.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64.
- Moon, Kyung-Hwan. “Reflections on the Creativity of Language”.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4 (1998).
- Newmeyer, Frederick. “Has There Been a ‘Chomskyan Revolution’ in Linguistics?” *Language*, 62:1 (1986).
- Piattelli-Palmarini, Massimo. *Language And Learning: The Debate between Jean Piaget*

- and Noam Chomsk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0.
- Pinker, Steven. *The Language Instinct: How the Mind Creates Language*. New York: Morrow & Co., 1994.
- Popper, K.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 Sampson, Geoffrey. *Schools of Linguis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 Seuren, Pieter A. M. *Western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1998.
- Suppe, Frederic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7.
- Wade-Matthews, Max & Wendy Thompson. *The Encyclopedia of Music*. New York, N. Y.: Annes Publishing Ltd., 2002.

[Abstract]

A Cross-sectional View of the So-Called Mainstream Linguistic Theory

Kyung-Hwan Moon
(Yonsei University)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Chomskyan theory of language that is gaining ground under the title of the "minimalist program" has been the urge to reduce the variety of natural languages to a minimal number of theoretical concepts and devices and to formulate the strongest possible hypothesis about linguistic structures. This has led to a long series of proposals of ever greater abstractness, with concomitant modifications in a number of theoretical constructs. The minimalist approach is the latest development of these constant changes, for which there is really "only one computational system and one lexicon," the differences among languages being reducible to parametric variation in "nonsubstantive parts of

the lexicon” (Chomsky 1995:169-70). Chomsky thus differs, now more than ever, from other linguists by his sweepingly programmatic, rather than empirical, approach to language. The proposals he makes are too complicated to discuss here in any technical details. We rather focus on a series of lectures delivered by an ardent adherent of the minimalist program, with the view to demonstrating how this theory may mislead and distort the whole prospect of linguistic investigation. The rationale of the so-called 'minimalism' *per se* will be called into question.

접 수 일 : 2005년 4월 22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 ~ 5월 20일

제 심 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